

민주 '돈봉투 사태' 수습책 고심... 총선 혁신공천 이어지나

개발방지 '고강도 혁신안' 검토...대의원 표 비중 축소에 '무계' 지도부, 일각의 내부 진상조사 요구에 "실효성 없다" 거듭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요청에 따라 24일 귀국하면서 급한 불은 끈 형국이지만, 추가 대응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정당 개혁안 마련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 혁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불법 정치자금 오

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고강도 정당 혁신안을 만들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의원 제도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의원에 대해 전당대회 표 비중(45%)을 대폭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경선 캠프의) 금품 살포 유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의원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현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대의원제도의 개선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의 이같은 구상은 당장의 수습책이 될 수 없다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 (이소영 의원)는 물론 의원 모두가 '진실 고백 성명' (신정훈 의원)을 내자는 제안도 나온 상황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제는 당의 운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지도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체 조사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한계가 있겠지만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내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는 자체 진상규명이나 전수조사와 같은 강제성을 띤 내부 조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도부 인사는 "전수조사에 나섰다가 의원들이 부인하면 답이 없다. 진상규명도 당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오히려 선불리 나섰다가는 민심의 집중 표화만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주당이 거둬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의 바람으로 민심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강도 정당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총선 공천 료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도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천 TF에서 내놓은 공천 료를 보면 기존 시스템 공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집단 지성만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주 광주시당 현안 해결 협력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군공항 이전·복합쇼핑몰 유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광주군 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24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앞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열고 광주군 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지원 등 13가지 협의 의제를 정했다.

양측은 가장 먼저 광주군 공항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로 군 공항 이전 이후 국가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이전 부지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정부 등을 상대로 설득하기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은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끌어내고, 쇼핑몰 예정지 인근 교통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KTX 배차 횟수 증편, 선교저수지 복합 호수공원 조성,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 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등 지역 현안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모두 힘을 합쳐서 잃어버린 당심과 민심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광주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후속 대응을 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국' 송영길 "檢 소환시 협조하고 문제 해결 앞장"

'전대 돈봉투 의혹'에 프랑스서 중도 귀국... "모르는 사안 많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4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 기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환대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檢 '곽상도 50억 뇌물' 산은·호반건설 압색

아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제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들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

고 그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들 컨소시엄을 비롯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 애초 하나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의들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김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의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의 부자들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운영

본점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